

3. 尖端 産業 動靜

16메가 DRAM 가격 하락으로 메모리 분야에 특화한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

M·T社의 제품 소형화·코스트 삭감 전략이 메모리 市況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

■ 明暗 뚜렷해진 반도체 景氣

○ 景氣 양극화 심화

- 미국반도체공업회(SIA)는 금년 5월의 세계 반도체 출하액이 올들어 처음으로 前年 同月 對比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함
- 나아가 SIA는 세계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했다고 보고함으로써 메모리 분야가 주력인 아시아지역과 뚜렷한 온도차를 보임
- 메모리반도체는 16메가 DRAM 가격의 하락으로 6월 이후 市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
-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메모리분야에 특화한 한국 메이커들의 타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
- 한국 반도체업체들은 6월부터 이미 본격적인 감산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

○ 주목되는 미국 메모리업체 동향

- 미국의 DRAM 주력업체인 마이크론·테크놀러지(M·T)社는 소형 메모리 반도체 칩을 개발하여 코스트를 크게 절감하였음
- M·T社 제품의 16메가 DRAM 칩의 크기는 기존 韓·日 칩의 70% 정도임
- 소형화를 통한 코스트 절감 노력으로 16메가 DRAM 1개당 원가를 3-4달러로 줄였음
- 한국과 일본의 제조 원가가 5-6달러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경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임
- M·T社는 올들어 16메가 DRAM 增産에 돌입하여 현재 월평균 3000만개의 칩을 생산하고 있음
- M·T社의 최근 동향이 아시아 지역 메모리 市況 악화의 主因이 되고 있음

(「日本經濟新聞」, 1997. 7. 10)

■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가전 업체의 전략(소니社 사례)

PC의 가전 기능 확대와 전자 기기의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가전 업체의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

-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PC의 가전 기능 확대
 -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PC에 기존의 가전 기능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음
 - 정보 기록 매체와 기기들이 디지털로 표준화되어 각 기기간의 통합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
 - 선진국 가정의 PC 보급률은 30% 이상이며 계속 높아지는 추세여서, 컴퓨터가 가정의 핵심 기기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 -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기존의 기록 매체를 통합할 DVD의 등장으로 컴퓨터의 AV 시장 잠식이 유리해질 것임
 - 디지털 시대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교한 회로 집적 기술과 소형화 기술보다는 더 빠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

소니社는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 기기 사업 확대, 가전 기기의 디지털 전환, 위성 방송 사업 참여 등을 모색하고 있음

- 소니社의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전략
 - 가전기기의 디지털 전환 추진
 - 기존의 일부 계열사를 정리하여 가전기기의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함
 - 새로운 정보통신 계열사를 설립하여 디지털 정보 기기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확대함
 - 1990년 전체 판매에서 디지털 제품 비율은 10%에 불과했으나, 1996년에는 30%로 높아졌으며 2000년에는 50%까지 끌어올릴 계획임
 - 디지털 방송 사업 참여
 - 퍼펙TV에 이미 5%의 지분 참여를 했을 뿐 아니라, JSkyB 사업 참여도 추진하고 있음
 - 이는 디지털 방송장비 시장을 선점하고, 自社의 영상 사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방송소프트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

(Economist, 1997. 6/28)